

나노브릭

| Bloomberg Code (286750 KS) | Reuters Code (286750.KQ)

2023년 10월 13일

[혁신성장]

백지우 연구원
☎ 02-3772-2671
✉ jiwoo100@shinhan.com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Not Rated

-



현재주가 (10월 12일)

2,830 원



목표주가

-



상승여력

-

- ◆ 보안,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나노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
- ◆ ESL, 색가변 가전제품 시장 등의 고성장 전방산업 진출 가시화
- ◆ 2024년 매출액 182억원(+180% YoY)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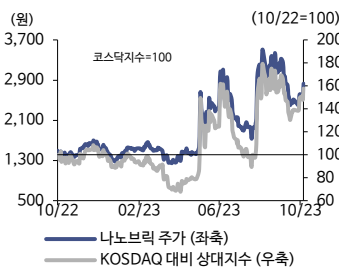


신한 리서치 투자정보
www.shinhansec.com

시가총액	58.3십억원
발행주식수	20.6백만주
유동주식수	16.5백만주(80.0%)
52주 최고가/최저가	3,500원/1,250원
일평균 거래량 (60일)	1,508,609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4,596백만원
외국인 지분율	2.72%
주요주주	
주채현 외 6인	20.03%

절대수익률	
3개월	48.1%
6개월	91.2%
12개월	90.6%
KOSDAQ 대비 상대수익률	
3개월	56.0%
6개월	103.8%
12개월	53.2%

주가



보안, 바이오, 디스플레이까지 - 못하는 게 없는 나노소재

나노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는 첨단나노신소재 기업이다. 보안 사업에서의 매출을 기반으로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사업영역을 확대 중이다. 나노신소재는 자기력 및 전기장에 의한 구동기술로 구분된다. 자기장에 의해 구동되는 M (Magnetic) 제품군은 주로 보안, 바이오 제품에 활용된다. 위조 방지, 첨단보안 분야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여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전기장으로 구동되는 E(Electronic) 제품군은 주로 기능성 디스플레이 제품에 활용된다. 전기장 기반 제품군의 경우 일부 시범사업 매출을 제외하고는 아직 매출이 본격화되지 않았다. ESL, 감성 외장재, 색가변 소재, 스마트 윈도우 등 개화중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전히 잘하는 M 제품, 앞으로 더 잘할 E 제품

고성장중인 ESL 시장 진출을 위해 적합한 E-Skin을 개발했다. E-Skin이 나아갈 수 있는 시장 중 ESL은 일부에 불과하다. 대면적에 강점이 있는 E-Skin의 경우 LCD 광고판을 대체하는 옥외 광고판, 전자 메뉴판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가전제품, 차량의 색상을 바꾸는 ‘감성 외장재’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초저전력 트렌드가 강해지며 시장의 관심은 ESL을 넘어 디지털 사이니지 및 외장재 시장 전반으로 확대 될 전망이다.

M 사업부 역시 여전히 견조하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중동 정부향 53억원 규모 보안제품 추가 수주 계약이 체결됐다. 이번 중동정부 공급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 지역의 B2G 진출이 기대된다.

2024년 매출액 퀀텀 점프 전망

2024년 매출액 182억원(+180% YoY), 영업이익 64억원(흑전 YoY)을 전망한다. 중동 수주를 기반으로 M 사업부에서는 약 110억원, ESL, 가전 등 다양한 전방시장 진출로 E 사업부에서는 약 62억원의 매출이 추정된다. 추정치에 반영하지 않은 ETD 광가변 기반 제품 출시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다시 한번 큰폭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12월 결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지배순이익 (십억원)	EPS (원)	BPS (원)	PER (배)	EV/EBITDA (배)	PBR (배)	ROE (%)	순차입금비율 (%)
2021	7.0	(1.6)	(2.8)	(139)	606	(28.3)	(42.1)	6.5	(22.8)	11.9
2022	7.1	(3.6)	(2.4)	(117)	496	(11.3)	(10.3)	2.7	(21.3)	35.4
2023F	6.5	(1.8)	(2.2)	(105)	388	(24.7)	(47.0)	6.7	(23.8)	61.8
2024F	18.2	6.4	5.6	271	658	9.6	7.8	3.9	51.8	11.5
2025F	31.1	11.0	9.5	460	1,118	5.7	4.0	2.3	51.8	(26.6)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I. 기업개요

첨단 나노 신소재 전문 기업

나노소재의 활용처: 보안, 바이오, 디스플레이까지

나노소재를 활용한 응용제품을 개발하는 첨단나노신소재 전문 기업이다. 2007년 설립 이후 나노 신소재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201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보안 사업에서의 매출을 기반으로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 중이다. 나노브릭의 나노신소재는 자기력에 의한 구동기술과 전기장에 의한 구동기술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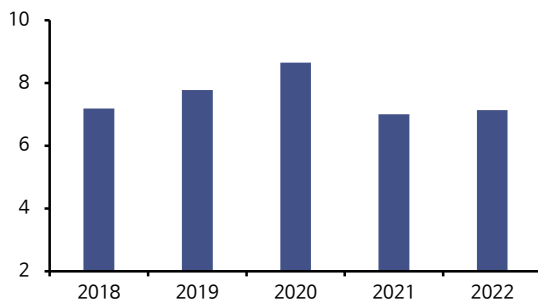
나노브릭 주요 연혁

일시	내용
2007.05	나노브릭 설립
2012.08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사업' 선정 (지식경제부)
2014.03	나노브릭 공장 확장 이전(평택)
2016.03	첨단기술 제품 확인 인증(산업통상자원부), 중국법인 설립
2017.01	중국 위조방지산업연합회 이사회 등재
2018.05~06	신제품 M-Skin, M-Paper, M-Pac 출시
2019.08	코스닥 상장
2020.01	분자진단 바이오 소재사업 (M-Bead) 본격화
2022.01	전기색가변 필름 E-Skin 개발 성공
2023.01	전기색가변 필름 E-Skin 양산 성공
2023.05	TFT 구동 E-Skin 패널 개발 성공

자료: 회사자료,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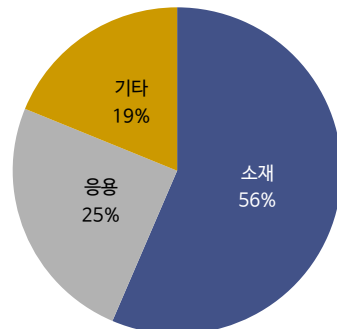
상장 이후 매출액 추이

(십억원)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2022년 매출 비중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1. 자기장에 의한 구동 방식

자기장에 의해 구동되는 M(Magnetic) 제품군은 주로 보안, 바이오, 기능성 제품에 활용된다. 자기장을 활용하여 색상을 변화시키거나, 자성을 통해 특정 물질을 분리해내는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응용제품을 생산 중이다.

M-Tag: 나노브릭의 대표 정품인증 보안 솔루션이다. 자기장에 의해 색상, 패턴 등이 변화하는 나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다. 세계 최초로 자기색가변 나노소재가 적용되었으며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석으로 라벨의 색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즉시 정품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 제품이 적용되는 곳은 주로 화장품, 식음료, 의료 제약품, 명품 주류 등이 있다. M-Tag 외에도 카드형태의 정품인증솔루션인 M-Card, 워터마크 및 홀로그램 형식의 보안문서솔루션인 M-SecuPaper 등의 보안 제품군이 있다.

M-Bead: 초상자성 나노입자에 고동노 작용기가 코팅되어 신속하게 바이오 물질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제품이다. 원심분리기 등을 사용하여 30분 이상의 정제시간이 걸리던 과거의 방식과 달리, Magnetic Bead 방식은 자석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다량의 샘플을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다. M-Bead는 주로 진단키트, 신약개발 등에 사용된다.

M-Spectra: 외부 자성에 따라 색상, 패턴이 변화하는 필름 형태의 제품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패턴 및 강도를 시각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 M-Spectra 제품은 자기장 측정기기, 교육용 기자재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MRI와 같이 고자기장 발생기기의 표장재에 적용되어 작동 유무를 시각적으로 빠르게 전달할 수 있으며, 인덕션이나 스피커의 작동 유무 또한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나노브릭의 자기장 기반 제품군은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며 매출처를 확대하고 있다. 위조 방지, 첨단보안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하였고 최근 바이오 시장 진입이 가시화되며 매출 다각화가 기대된다.

M-Tag 자기 색가변 소재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M-Bead 작동 원리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2. 전기장에 의한 구동 방식

전기장에 의해 구동되는 E(Electronic) 제품군은 주로 기능성 디스플레이 제품에 활용된다. 전기장을 활용하여 투과도, 색조, 색상 등을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디스플레이를 저전력으로 구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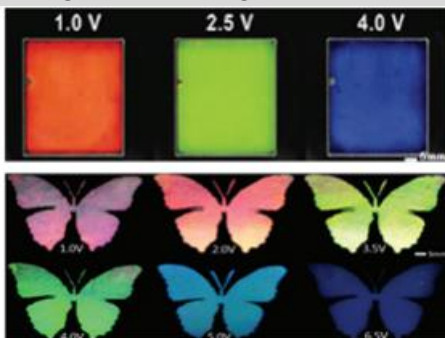
EX-Ink(ETX): ETX(Electically Tunable Photonic Crystal Material)은 전기색가변 소재기술이다. 물질 내에 나노입자들의 간격을 전기장을 통해 미세하게 조절하며 다양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는 반사형 디스플레이 소재 기술이다. 기존의 풀 컬러 구현을 위해서는 Red, Green, Blue 등 3가지 이상의 소재를 혼합하여 색상을 구현하는 복잡한 공정구조가 필요했다. 반면 ETX 소재는 세계 최초로 하나의 픽셀에서 자연색에 가까운 풀컬러 구현이 가능하다.

EP-Ink(EPD): EPD(Electrophoretic Display Material)는 전기영동 디스플레이 소재기술이다. 유체내에 다른 전하를 가지는 나노입자의 위치를 전기장에 의해 조절하여 선택적으로 색상이 변하게 되는 기술이다. EPD의 경우 초저전압을 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전류가 없는 상태에서도 색상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직사광선에 강해 태양광 아래에서도 선명함을 유지할 수 있어 시인성이 뛰어나다. 이중톤 구현이 가능하여 디자인 측면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IT 기기 감성스킨, 전자자동 가격표지판(ESL), 교통표지판 등에 활용될 수 있다.

ET-Ink(ETD): ETD(Electrically Transparency Controllable Device Material)는 전기 신호에 따라 투과율을 조절하는 나노소재 기술이다. 흑색 나노 입자의 농도를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회색톤을 조정할 수 있다. 기본 색상은 검정색이지만 나노 입자의 색상에 따라 다양한 색을 구현할 수 있으며 색상 농도를 선택한 후에는 전류 공급이 필요하지 않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 투과도 조절이 필요한 스마트 윈도우, 스마트 가구, 혹은 투명 디스플레이에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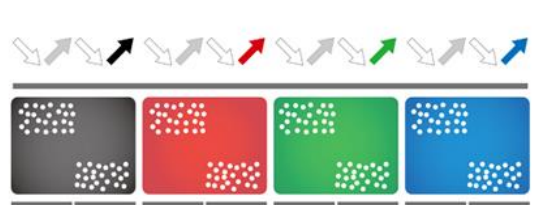
전기장 기반 제품군의 경우 일부 시범사업 매출을 제외하고는 매출이 본격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ESL, 감성 외장재, 색가변 소재, 스마트 윈도우 등 개화중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다면 매출의 폭발적인 성장은 물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TX: 전기장 조절에 의한 색상 변화 구조도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EPD 구동원리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II. 투자포인트

E-Skin, E-Sign: ESL 시장은 빙산의 일각

나노브릭은 ‘디지털 사이니지(광고판)’ 시장으로 이스킨(E-Skin) 적용을 확대했다. 지난 5월 전기색가변 기술 고도화를 통해 박막트랜지스터(TFT) 디스플레이 패널 제작에 성공했다. 이스킨은 기존 전자종이와 달리 고객 맞춤형 색조 변화가 가능하고 대면적 생산이 가능하다.

이번 TFT 패널 개발로 이스킨은 고화질 정보전달 기기에 적용이 가능하다. 전자종이는 야외에서 시인성이 뛰어나며, 초저전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기반으로 가격표시기(ESL) 등 정보 전달을 위한 각종 디스플레이에 사용될 전망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ESL 시장

ESL은 기존에 종이로 표시하던 상품정보 라벨을 디스플레이로 대체하는 전자식 매대 표기다. 2017년 3,500억원에 불과하던 ESL 시장규모는 2022년 1.7조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2023년에는 2.2조원, 2024년에는 2.5조원의 시장규모 달성이 예상된다. ESL 시장의 가파른 성장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 종이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경영이 부상하며 도입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와 광고영상까지 노출할 수 있어 수요가 커지고 있다.

나노브릭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ESL에 적용 가능한 E-Skin을 개발했다. 최초로 EP 필름을 TFT 백플레인에 적층함으로써 향후 ESL 적용에 대한 EPD 기술의 잠재력을 입증했다. 다양한 색상 구현이 가능하도록 E-Skin 특성을 향상시키는 등 ESL 적용을 위한 나노브릭의 EPD 기술은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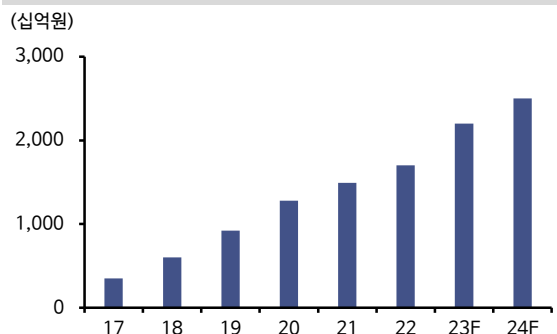
현재 시장의 관심은 ESL에 쏠려있으나 사실 ESL은 나노브릭의 E-Skin이 나아갈 수 있는 시장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대면적에 강점이 있는 E-Skin의 경우 기존 LCD 전광판을 대체하는 옥외 광고판, 전자 메뉴판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넷제로 트렌드, 초저전력에 대한 니즈로 인해 시장의 관심은 ESL을 넘어 디지털 사이니지 전반으로 확대 될 것을 예상한다.

TFT를 적용한 나노브릭 E-Skin



* 나노브릭 E-Skin의 실제 구동 이미지

ESL 시장규모 추이



자료: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신한투자증권

자료: 가트너, 신한투자증권

기능의 시대를 넘어 디자인의 시대

오늘의 냉장고 색은 핑크색으로 정했어!

나노브릭의 E-Skin은 대면적, 다양한 색상표현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감성외장재’에 적용이 가능하다. 가전제품, 더 나아가 자동차 등 다양한 제품의 외장 색상을 마음대로 선택하여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전 기술은 이미 최고 수준으로 소비자들은 더 이상 기능의 향상보다 인테리어에 어우러지는 ‘예쁜’ 가전제품을 원한다.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LG전자는 22년 9월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무드업’ 냉장고를 공개했다. 고객이 원하는대로 냉장고 도어 상칸 22종, 하칸 19종 컬러를 원하는 대로 조합할 수 있는 냉장고이다. 그러나 LED 광원을 이용하여 도광판을 사용하여 있기 때문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1등급이 아닌 2등급에 그쳤다.

삼성전자도 발빠르게 특허를 출원했다. 지난 1월 ‘냉장고, 가전기기 및 제어방법’ 특허를 출원했으며, ‘전기영동 디스플레이(EPD) 패널’을 활용해 냉장고(가전기기)의 외관 디자인과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PD의 경우 전류를 흘렸을 때 움직이는 미세한 나노 입자로 색상 및 이미지를 표시한다. 냉장고 문 자체에 대면적으로 패널을 적용하면 실시간으로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LG전자의 경우 LED를 사용했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초저전력으로 색상 변경이 가능한 EPD를 활용한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에 제품이 출시될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기존 비스포크 라인업은 취향대로 색상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변경을 원할시 패널 자체를 떼고 새로 달아야한다. 비스포크 라인의 장점은 취하며 편리성과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특허 출원이다.

나노브릭의 E-skin은 1) 단시간에 제작되는 모든 색상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며, 2) 대면적 롤 생산라인으로 원하는 사이즈로 납품이 가능하고, 3) 대면적 양산라인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했다. 나노브릭은 대면적으로 EPD 패널을 구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업체다. 삼성전자의 EPD를 활용한 색가변 냉장고를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EPD를 활용한 감성외장재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나노브릭의 전방시장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냉장고, 가전 기기 및 그 제어 방법’ 특허 출원 요약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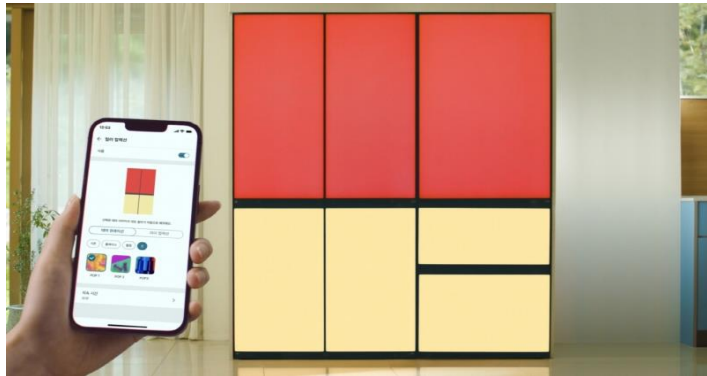
(54) 발명의 명칭 **냉장고, 가전 기기 및 그 제어 방법**

(57) 요약

전기영동 디스플레이(electrophoretic display, EPD) 패널을 이용하여 외관 디자인을 변경함으로써, 외관 패널의 교체 없이도 외관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는 냉장고 및 가전 기기를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 따른 냉장고는, 저장실; 상기 저장실을 개폐하도록 마련되고, 도어 바디, 상기 도어 바디의 전방에 위치하는 전기영동 디스플레이(electrophoretic display, EPD) 패널 및 상기 전기영동 디스플레이 패널의 전방에 위치하는 투명 패널을 포함하는 도어; 및 사용자의 선택 또는 동작 상태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색상을 변경하도록 상기 전기영동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어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LG전자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무드업'



자료: LG전자, 신한투자증권

BMW Concept Car (색가변 차량 외장재 사용)



자료: BMW, 신한투자증권

나노브릭의 Flexible Color Display 'E-Skin'



자료: 회사자료, 신한투자증권

색가변? 이젠 광가변까지

나노브릭의 E-Products 사업 로드맵에 따르면 2023년에는 EPD(색가변) 제품을, 2024년에는 ETD(광가변) 제품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ETD 소재는 전기 영동 원리를 기반으로 외부 전기 신호에 따라 투과도를 조절할 수 있는 소재이다. 전압을 가하면 나노입자가 패턴전극으로 이동하며 투과도가 변화하는 원리이다. 현재 ETD 기술을 활용해 ET-Ink 양산에 성공했으며,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ET-Film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T-ink의 경우 투과율 조절이 용이하고 에너지 소비가 낮은 DC 전압으로 구동되어 친환경 트렌드에 적합하다. 매우 얇고 유연하고 무게가 가벼워 설치에 있어서도 이점이 있다. 어떤 유리에 있어서도 아주 짧은 순간에 투과도 100%(투명한 상태)에서 투과도 0%(완전불투명 상태)로 전환이 가능하다.

ETD 기술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장규모에 있다. ESL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단순 면적으로만 봐도 전자가격표에 비해 스마트윈도우(유리)는 몇십배에 달한다. 아파트, 혹은 빌딩 전체에 스마트 윈도우가 탑재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시장은 당장의 추산이 어려울 정도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자동차, 전자기기에 사용도 가능하다. 벤츠는 E클래스 풀체인지를 통해 운전석부터 보조석까지 이어진 하이퍼스크린을 구현했다. 그러나 안전상의 이유로 운전자가 조수석 화면이 시야에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해야한다. 현재는 Passive한 필름 사용을 통해 운전석에서 아예 조수석 화면을 볼 수 없도록 통제했지만, ETD 기술을 활용한다면 상황에 따라 시야를 차단하거나 확보할 수 있다.

노트북,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기기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사생활 보호필름을 통해 옆에서는 화면을 볼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ETD 기술을 활용한다면 옆사람과의 내용공유가 필요할때는 투과도를 올리고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투과도를 낮춰 Active하게 활용할 수 있다.

ET-Film 적용분야



자료: 회사자료, 신한투자증권

벤츠 E클래스 풀체인지 내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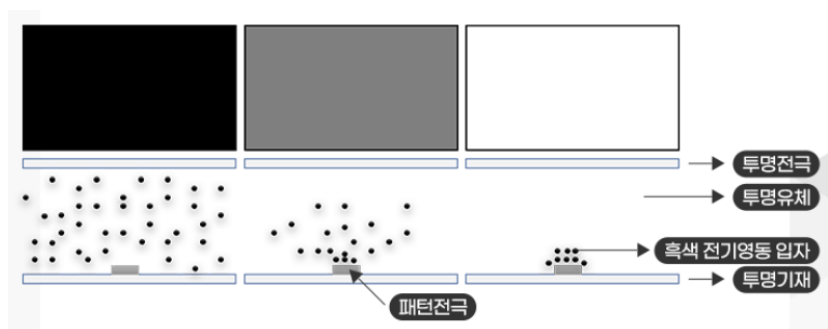
자료: 벤츠, 신한투자증권

투과도 변화에 따른 스마트 윈도우



자료: 회사자료, 신한투자증권

ETD 소재의 구동 원리



자료: 회사자료, 신한투자증권

여전히 든든한 M 사업부

B2B에서 B2G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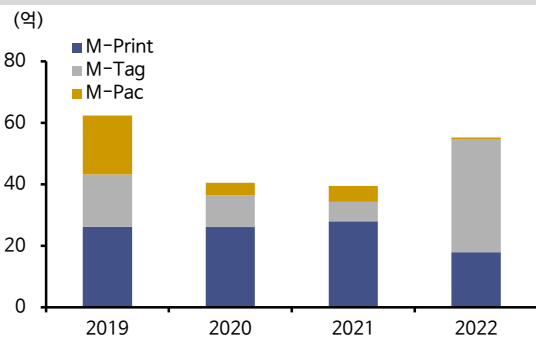
E 사업부의 모멘텀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는 M 사업부 역시 여전히 견조하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중동지역 정부향 보안솔루션 공급기업에 53억원 규모의 첨단보안제품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위조방지와 정품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보안 솔루션이다.

M-Tag, M-Pag 등의 보안솔루션으로 국내 화장품 위조방지 시장을 선도하였고, 중국 조폐잉크공사와 독점계약을 맺는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 정부보안사업에도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상반기에도 21억원 규모의 보안제품 수주에 성공하며, 올해 누적 수주 물량은 약 75억원(+174% YoY)이다. 수주물량 증가의 배경에는 B2G 시장 진출이 있다. 그동안 보안사업의 주요 시장으로 국내 B2B 브랜드 보호 시장을 타겟했던 반면, 올해는 글로벌 B2G 첨단보호인쇄 시장으로 진입하며 빠르게 수주물량을 확보했다. 특히 정부향 보안제품은 높은 수준의 첨단복제방지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으며, 수주 지속기간이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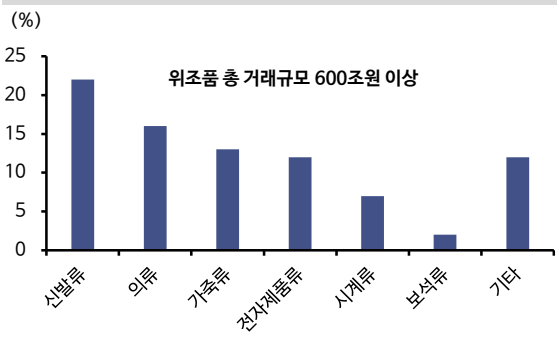
이번 9월에 체결한 중동 정부향 보안솔루션 공급계약도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계약이다. 공급 계약 기간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중동정부 공급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동남아 등 지역의 B2G 시장 진출 확대가 예상된다.

보안 제품 매출액 추이



자료: Dart, 신한투자증권

분야별 위조품 거래 비중 (거래규모 600조 이상)



자료: OECD 보고서, 신한투자증권

III. 실적전망

2024년 매출 원형 점프 전망

2024년 매출액 182억원(+180% YoY), 영업이익 64억원(흑전 YoY)을 전망한다. 올해 4분기부터 영업이익 턴어라운드 예상된다. 중동 정부향 수주를 기반으로 M 사업부에서는 약 110억원, ESL 및 가전 등 다양한 전방시장 진출로 E 사업부에서는 약 62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M 사업부 내 핵산추출 키트 등 바이오에 활용되는 제품 또한 2024년부터 매출 발생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업계의 특성상 시장진입에 있어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현재 높은 수준의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바이오 제품군은 보안솔루션에 더해 또다른 캐시카우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친환경 시대적 흐름에 맞춰 E 사업부내 ESL向 매출이 가장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나노브릭의 계획은 보다 더 먼 미래, 큰 시장을 바라본다. 대면적과 감성 색상에 강점이 있는 E-Skin을 통해 가전제품, 차량 등의 외장재 시장 진입이 기대된다. 삼성전자, LG전자가 앞다투어 색가변 가전제품을 출시하는 등 ‘감성외장재’의 시대가 머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다.

또한 24, 25년에는 ETD, ETX 등 광가변 기반의 제품 출시가 예상된다. ETD(광가변)제품 매출은 추정치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스마트 윈도우와 같은 광가변 제품 매출 발생이 시작된다면 다시 한번 큰 폭의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

연도별 실적 추이

(십억원)	2021	2022	2023F	2024F	2025F
매출액	7.0	7.1	6.5	18.2	31.1
M 사업부	4.8	6.2	5.7	11.0	19.8
E 사업부	0.5	0.1	0.2	6.2	9.8
기타	1.7	0.8	0.6	1.0	1.5
영업이익	(1.6)	(3.6)	(1.8)	6.4	11.0
영업이익률	(23.3)	(50.3)	(28.1)	35.2	35.3
지배주주순이익	(2.8)	(2.4)	(2.2)	5.6	9.5

자료: 신한투자증권 추정

재무상태표

12월 결산 (십억원)	2021	2022	2023F	2024F	2025F
자산총계	33.0	28.1	19.4	23.3	30.1
유동자산	22.4	15.9	7.8	9.6	14.6
현금및현금성자산	3.3	2.1	1.3	2.4	6.4
매출채권	2.4	0.9	0.8	1.0	1.1
재고자산	2.4	2.4	2.2	2.5	2.8
비유동자산	10.6	12.2	11.6	13.7	15.5
유형자산	9.4	10.6	10.1	12.0	13.7
무형자산	0.2	0.2	0.1	0.1	0.1
투자자산	0.8	0.7	0.6	0.8	0.9
가타금융투자자산	0.0	0.0	0.0	0.0	0.0
부채총계	20.6	18.0	11.3	9.7	7.1
유동부채	19.4	16.7	10.1	8.4	5.3
단기차입금	0.0	0.0	0.0	0.0	0.0
매입채무	0.1	0.2	0.1	0.4	0.7
유동성장기부채	3.6	3.3	3.3	2.1	0.3
비유동부채	1.2	1.3	1.2	1.4	1.8
사채	0.0	0.0	0.0	0.0	0.0
장기차입금(영/금융부채 포함)	0.0	0.1	0.1	0.1	0.1
가타금융투자부채	0.0	0.0	0.0	0.0	0.0
자본총계	12.4	10.1	8.0	13.6	23.0
자본금	4.7	10.2	10.2	10.2	10.2
자본잉여금	31.7	26.1	26.1	26.1	26.1
기타자본	0.2	0.3	0.3	0.3	0.3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0	0.0	0.0	0.0	0.0
이익잉여금	(24.1)	(26.5)	(28.6)	(23.1)	(13.6)
자배주주자본	12.4	10.1	8.0	13.6	23.0
비자배주주자본	0.0	0.0	0.0	0.0	0.0
총차입금	18.5	15.7	9.2	7.2	4.0
순차입금(순현금)	1.5	3.6	4.9	1.6	(6.1)

현금흐름표

12월 결산 (십억원)	2021	2022	2023F	2024F	2025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9)	(1.1)	(1.4)	6.2	10.4
당기순이익	(2.8)	(2.4)	(2.2)	5.6	9.5
유형자산상각비	0.6	0.5	0.5	0.6	0.8
무형자산상각비	0.1	0.1	0.1	0.0	0.0
외환환산손실(이익)	(0.0)	(0.0)	0.0	0.0	0.0
자산처분손실(이익)	(0.0)	0.0	0.0	0.0	0.0
지분법, 종속, 관계기업손실(이익)	0.2	0.1	0.0	0.0	0.0
운전자본변동	(3.0)	0.1	0.1	(0.1)	0.0
(법인세납부)	(0.0)	(0.0)	0.0	(0.3)	(1.2)
기타	2.0	0.5	0.1	0.4	1.3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9.0)	0.3	7.1	(3.1)	(3.1)
유형자산의증가(CAPEX)	(0.4)	(1.5)	0.0	(2.6)	(2.5)
유형자산의감소	0.0	0.0	0.0	0.0	0.0
무형자산의감소(증가)	(0.0)	(0.0)	0.0	0.0	0.0
투자자산의감소(증가)	(1.0)	0.0	0.1	(0.2)	(0.2)
기타	(7.6)	1.8	7.0	(0.3)	(0.4)
FCF	N/A	(2.8)	(1.0)	3.9	7.7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1.4	(0.4)	(6.5)	(2.0)	(3.2)
차입금의 증가(감소)	10.5	(0.3)	(6.5)	(2.0)	(3.2)
자기주식처분(취득)	0.0	0.0	0.0	0.0	0.0
배당금	0.0	0.0	0.0	0.0	0.0
기타	0.9	(0.1)	0.0	0.0	0.0
가타현금흐름	0.0	0.0	0.0	0.0	0.0
연결범위변동으로인한현금의증가	0.0	0.0	0.0	0.0	0.0
환율변동효과	0.0	0.0	0.0	0.0	0.0
현금의증가(감소)	(0.5)	(1.2)	(0.8)	1.2	4.1
기초현금	3.7	3.3	2.1	1.2	2.4
기말현금	3.3	2.1	1.2	2.4	6.5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포괄손익계산서

12월 결산 (십억원)	2021	2022	2023F	2024F	2025F
매출액	7.0	7.1	6.5	18.2	31.1
증감률 (%)	N/A	1.9	(9.0)	180.0	70.9
매출원가	4.4	4.9	2.1	4.2	7.5
매출총이익	2.6	2.3	4.4	14.0	23.6
매출총이익률 (%)	37.8	31.7	67.7	76.9	75.9
판매관리비	4.3	5.9	6.2	7.6	12.6
영업이익	(1.6)	(3.6)	(1.8)	6.4	11.0
증감률 (%)	N/A	적지	적지	흑전	71.5
영업이익률 (%)	(23.3)	(50.3)	(28.1)	35.2	35.3
영업외손익	(1.2)	1.2	(0.3)	(0.5)	(0.3)
금융손익	(1.1)	1.3	(0.2)	(0.4)	(0.2)
가타영업외손익	0.1	0.0	0.0	0.0	0.0
종속 및 관계기업관련손익	(0.2)	(0.1)	(0.1)	(0.1)	(0.1)
세전계속사업이익	(2.8)	(2.4)	(2.2)	5.9	10.7
법인세비용	0.0	0.0	0.0	0.3	1.2
계속사업이익	(2.8)	(2.4)	(2.2)	5.6	9.5
중단사업이익	0.0	0.0	0.0	0.0	0.0
당기순이익	(2.8)	(2.4)	(2.2)	5.6	9.5
증감률 (%)	N/A	적지	적지	흑전	69.9
순이익률 (%)	(40.3)	(33.6)	(33.2)	30.7	30.5
(자배주주)당기순이익	(2.8)	(2.4)	(2.2)	5.6	9.5
(비자배주주)당기순이익	0.0	0.0	0.0	0.0	0.0
총포괄이익	(2.9)	(2.3)	(2.2)	5.6	9.5
(자배주주)총포괄이익	(2.9)	(2.3)	(2.2)	5.6	9.5
(비자배주주)총포괄이익	0.0	0.0	0.0	0.0	0.0
EBITDA	(0.9)	(3.0)	(1.2)	7.1	11.8
증감률 (%)	N/A	적지	적지	흑전	67.3
EBITDA 이익률 (%)	(12.9)	(41.9)	(19.1)	38.8	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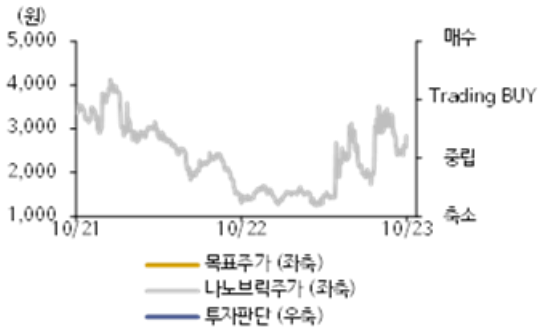
주요 투자지표

12월 결산	2021	2022	2023F	2024F	2025F
EPS (당기순이익, 원)	(139)	(117)	(105)	271	460
EPS (자배순이익, 원)	(139)	(117)	(105)	271	460
BPS (자본총계, 원)	606	496	388	658	1,118
BPS (자배지분, 원)	606	496	388	658	1,118
DPS (원)	0	0	0	0	0
PER (당기순이익, 배)	(28.3)	(11.3)	(24.7)	9.6	5.7
PER (자배순이익, 배)	(28.3)	(11.3)	(24.7)	9.6	5.7
PER (자본총계, 배)	6.5	2.7	6.7	3.9	2.3
PER (자배지분, 배)	6.5	2.7	6.7	3.9	2.3
EV/EBITDA (배)	(42.1)	(10.3)	(47.0)	7.8	4.0
배당성향 (%)	0.0	0.0	0.0	0.0	0.0
배당수익률 (%)	0.0	0.0	0.0	0.0	0.0
수익성					
EBITDA 이익률 (%)	(12.9)	(41.9)	(19.1)	38.8	38.0
영업이익률 (%)	(23.3)	(50.3)	(28.1)	35.2	35.3
순이익률 (%)	(40.3)	(33.6)	(33.2)	30.7	30.5
ROA (%)	(8.6)	(7.8)	(9.1)	26.2	35.5
ROE (자배순이익, %)	(22.8)	(21.3)	(23.8)	51.8	51.8
ROC (%)	N/A	(26.0)	(13.9)	44.1	61.5
안정성					
부채비율 (%)	165.9	177.4	141.8	71.8	30.9
순차입금비율 (%)	11.9	35.4	61.8	11.5	(26.6)
현금비율 (%)	16.8	12.4	12.5	28.6	121.1
이자보상배율 (배)	(4.8)	(3.4)	(2.4)	12.7	31.9
활동성					
순운전자본회전율 (회)	1.6	2.0	2.5	6.9	10.7
재고자산회수기간 (일)	126.1	123.5	129.4	46.7	31.0
매출채권회수기간 (일)	122.7	84.0	50.0	18.1	12.0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투자 의견 및 목표주가 차이

나노브릭(286750)

[illegible]

주: 목표주가 괴리율 산출 기간은 6개월 기준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백지우)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 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

종목	매수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이상 Trading BUY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10% 중립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20% 축소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20% 이하	섹터	비중확대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매수 비중이 높을 경우 중립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립적일 경우 축소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Reduce가 우세한 경우

신한투자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3년 10월 11일 기준)

매수 (매수)	93.52%	Trading BUY (중립)	4.45%	중립 (중립)	2.02%	축소 (매도)	0.00%
---------	--------	------------------	-------	---------	-------	---------	-------